

서울市 主要 幹線道路의 交通騒音度 調査研究

騒音振動科

李連秀 · 韓天吉 · 李相七 · 崔錦淑 · 申載英

A Study on Traffic Noise in Seoul Area

Noise & Vibration Division

Yeun-Soo Lee, Chun-Kil Han, Sang-Chil Lee
Keum-Suk Choi and Jai-Young Shin

= Abstract =

This survey was carried out to contribute to the investigation of long term traffic noise at 27 locations in June 1993.

1. Leq was 69-77dB(A) in downtown area and 65-79dB(A) in the outer commercial area.
2. Leq at most points were over 70dB(A), environmental criteria of traffic noise.
3. The highest was 78.5dB(A) at shiheung-dong and the lowest was 64.7dB(A) at Jamsil station.
4. L₉₀ (background level) was over the environmental criteria at 4 locations.
5. L₁₀ at all points were over 70dB(A), encouragement standard in America.
6. L_{NP} was high at locations where the sound level was full of variety, segom-dong and 6 locations.
7. There was wide variations 65-75dB(A) at all points.

서론

社會, 經濟活動의 發展과 그리고 人間의 生活樣式과 價値觀의 多樣化에 따라 騒音의 發生形態도 多樣하게 變化해 왔는데 이러한 騒音은 B.C 800년경 希臘에서 最初로 工場騒音으로 인한 規制가 實施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규제하기 시작했다. 騒音公害의 特徵은 感覺公害로서 非蓄積性, 一過性이며 同時 多發的¹⁾이어서 環境公害民願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실제 1990년 서울시민의 環境에 관한 民願²⁾의 60% 이상이 騒

音問題였으며 1991년 全國의인 소음문제³⁾는 49%였다.

이러한 소음공해는 集中力困難, 不安症, 作業能率低下, 睡眠妨害, 難聽^{8,9)} 등을 일으키며 우리들의 신체와 정신에 惡影響을 끼쳐 생활환경을 威脅해 오고 있다. 도로교통소음을 效率的으로 低減시키기 위해서는 排出源의 生産段階부터 규제하는 것이 效果의이나 소음원 자체가 移動性 排出源이며 生活空間과 혼재되어 있어 劃一的인 規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都市 生活者의 대부분은 日常生活에서 여러 종류의 소음에 暴露되어 있으며 住居生活를 侵害하는 소음공해에는 交通騒音, 工場騒音, 建設騒音 그리고 雜騒音 등을



